

과수화상병 방제시기 알려드립니다

농진청, 화상병 예측시스템 'K-메리블라이트' 개발 방제효과 92.7%·꽃 마름 증상 조기 발견가능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개화기에 감염 위험 정보에 따라 화상병 방제시기를 알려주는 'K-메리블라이트'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지난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개양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방화곤충(화분을 분반하는 곤충)에 의해 사과 배 개화기에 꽃으로 옮겨져 발병이 시작되므로 제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는 만개 후 5일, 15일 2회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가지잡은마름병 방제 기준이므로 과수화상병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위해 개발된 예측 모형은 선문

대학교 에피넛(주)과 함께 미국 메리블라이트(Maryblight) 예측 모형에 사과·배의 발아일, 개화 시작일, 낙화 종료일을 추가해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방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기존 과수화상병 방제 효과가 76.5%에 그친데 비해 이 모형을 기반으로 2회 약제를 처리한 결과, 방제 효과가 약 10% 높아진 92.7%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에서 처음 꽃이 마름 증상을 발견한 날짜와 K-메리블라이트가 예측한 증상 날짜를 비교한 결과, 농가 발견 최소 3일 전에 꽃 마름 증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K-메리블라이트'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firelight.org)을 구축하고,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메리블라이트(Maryblight)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생육과 기상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반면, 이번 개발한 기반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은 기상자료 입력과 품질관리, 사과와 배의 생육단계 추정, 방제 적기 알림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개발했다. 또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1,197개 지점의 기상 정보를 활용해 구축했고, 현재 농업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3개 지점의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한 예방법으로 농업인은 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제 적기에 따라 2회 이상 적용 약제를 뿌려야 하며, 위험 경보 발령 시에

는 24시간 내 적용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사과와 배 개화기에는 약제가 우려돼 약제 사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기에 약제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미생물제나 저항성유도제 농약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개화 초기에 미생물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화상병 예측 정보에 따라 합성 농약을 사용하며, 개화 초기 약제를 사용할 경우는 저온기에는 물만 뿌려도 꽃이 타는 약해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냉해 피해가 우려될 때는 약제를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농진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예측 정보에 따라 약제를 2회 이상 사용하고,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량의 약제를 다른 농약과 섞지 말고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의 '산지유통 혁신 2022 프로젝트' 선도모델 후보조직 발굴을 위한 담당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판매사업 3조 달성 다짐 | 전북농협 '경제사업 추진전략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에 앞서 농협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 경제사업 추진전략회의'를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재호 본부장을 비롯한 지역영협 경제상무, 시군지부 농정지원담당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농협 경제사업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 듣고, '산지유통 2022 프로젝트' 선도모델 육성 과 과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판매사업 3조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의 각 부서별 핵심 사업을 전

파하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상품소싱 오픈 플랫폼 기반 산지 온라인 사업 지원 확대, 계통 하나로마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유통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품화 시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확대하고자 드문모 심기 확대, 농기계 은행사업 활성화, 농협 자체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산지 유통 강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자 수급안정 사업,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참여 증대, 전북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공선회 육성으로 농가수취가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메가FTA 추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 직원이 하나가 되면 3조 원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혁신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난 18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44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및 상근직원, 조합회원사 등이 참석했으며, 안전전문가인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오병선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과,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채정목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인력과 자금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면책기제가 필요"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과 단속기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절집방 등 1만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벌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타포린)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을 금지,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실용적인 아이디어·제품 개발

농식품부, 창업경진대회 오늘부터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 관계 기관과 함께 '2022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농식품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응모 분야는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더리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2개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빅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NH농협은행이 운영하는 새싹 기업스타트업) 육성 전문 프로그램인 'NH디지털챌린지+' 지원 시 혜택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상위 수상작 4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진출할 자격과 함께,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1 상담(멘토링)과 응모작의 완성도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담당자(044-861-8753, opendata@epis.or.kr)로 문의하거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http://data.maf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는 미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핵심 원동력"이라며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소상공 250억원 금융지원 확대

전북은행, 도·전북신보와 함께... 업체당 최대 5000만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전라북도, 전북신보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2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내 폐업자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서 매출액 감소 보전 및 임차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북은행은 전북도, 전북신보보증재단과 지난 17일 '2022년 소상공인 회생 보증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억5천만 원을 전북신보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21일부터 250억 원 규모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일시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으로 1% 중반 수준의 저금리대출을 지원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자영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금융 지원으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전북신보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60년만에 최고 흑자로 '상복 터졌네'

정읍산림조합, '2021 경영정상화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정읍산림조합이 취임 3년차인 2021년에 정읍산림조합 창립 60년만에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결산 기준 경영정상화 평가에서 전국 산림조합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금융 종합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정읍산림조합은 이사들과 내부 직원의 고소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서 장조함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등, 큰 내용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세우며 안정된 경영성과 지표를 이끌어 내면서 우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산림조합은 2018년 당기순이익이 1억7,000만원, 2019년 4억3,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2021년 8억3,000만원으로 매년 고성장세를 해 2018년에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이후, 부진한 사업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으나 장조함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조함 조합장은 "정읍산림조합이 2018년 1월에 개장한 임산물유통센터의 사업부진 영향으로 일반 경제사업 결산이 2020년까지 연속 3년간 적자로 마감하였는데 다행히도 2021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4년만에 결산을 마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한해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며 "정읍산림조합을 완전히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통상전문가 컨설팅 지원 운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고충 해소를 위해 '통상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통관, 무역서류 작성부터 중국 인증 미국 FDA,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 분쟁까지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변호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전문가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대체하고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업을 시작한 2021년 이래 기업 만족도가 높아 사업 확대를 요청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주 수요일에 진행했던 컨설팅을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기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출 고충 해결 서비스로 운영한다.

이현웅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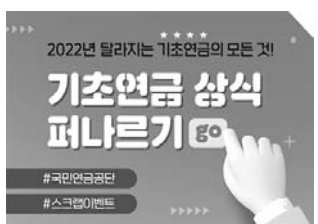
'올 기초연금 변경사항 알립니다'

국민연금 '스크랩 이벤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2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기초연금 스크랩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스크랩 이벤트는 공단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기초연금 블로그 콘텐츠를 본인의 블로그로 공개 스크랩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스크랩한 인터넷 주소(URL)를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 결과는 4월 초 공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2월 기준 약 58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부



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돕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스크랩 이벤트를 통해 2022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내용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될 예정이다"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